

대행 스님

말을 하더라도 주인공 자체로서 들이 아니게끔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좀 굳어 있으니 우스운 얘기 좀 하고 시작하죠. 그전에 말입니다, 제가 어느 산길로 들어서서 내려다보니깐 조그마한 마을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났죠.

예전에 한 정승이 지나가는데 거지가 아들을 데리고 있다 하는 소리가 "야! 정승이 얼마나 바쁘겠느냐? 나는 그렇게 바쁘지 않고, 잠도 늦도록 잘 수 있고, 아무 데 가서도 앉을 수 있고, 아무 데 가서도 편안할 수 있고, 또 배가 고파도 가서 달라면 줄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편안하냐?" 하니까 아들이 있다 하는 소리가 "그러믄요, 그것이 다 아버님 덕분이죠." 하거든요.

또 거지가 아들을 데리고 휘적휘적 가다 보니깐 물난리가 나서 야단들이거든요. 아마 올같이 그렇게 물난리가 많이 났던 모양이죠. "야! 너는 참 행복하구나, 아버지를 잘 둬서."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 하는 소리가 "정말, 아버님 덕분입니다. 우리는 집이 없어서 물난리 날 일이 없으니 마음 편안하고, 또 땅값을 내라니 걱정인가? 아무 걱정도 없으니 이 팔자가 상팔자지 뭡니까?" 아,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거지 부인더러 하는 소리가 말입니다, "12월 달만 되면 모두 빚들을 주고받고 하는데 우리는 빚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으니 얼마나 편안하냐?" 하니까, 부인이 있다 하는 소리가 "참, 당신 덕분에, 당신한테 시집을 잘 왔죠. 당신 덕분에 얼마나 편안합니까?"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그 불나는 바람에 생각이 문득 났는데 나이가 어린 탓인지 몰라도 그만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왜 웃었겠습니까? '자도 누가 땅값 내라는 사람이 있나. 어쩌면 그렇게 나와 똑같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팔자가 좋아서, 정말이지 기뻐서 웃었습니다.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보다도 그때가 너무 즐거웠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요즘은 여러분이나 또 우리 스님네들이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리로 가십시오, 저리로 가십시오' 그러거든요, 지금은요. 그러니 그때보다야 자유스럽지 못하죠. 허허허. 그때 지금처럼 기운이 있어서 막 웃지도 못했지마는 킥킥킥킥 하고 얼마나 웃었는지, 즐거운 웃음이었습니다. 야, 자도 땅세 내란 말도 없고, 하늘을 지붕 삼았으니 누가 세금 내라는 사람도 없고 집을 치우느라고 걱정할 것도 없고, 태울까 봐 걱정할 것도 없고, 집어 갈까 봐 걱정할 것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으니 말입니다.

단 하나, 그전에 생각을 한 거는 그때엔 나이가 어리니깐 말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살이 있지만 그때는 혼자 다니기가 안됐으니까 진흙을 얼굴에다 덕지덕지 칠해서 말라붙은 채 다녔던 거밖에는 없습니다. 이 집을 누가 집어 갈까 봐 말입니다, 허허허.

참, 그때는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재미있는 얘기라고 하기 이전에 지금도 때때로 그 생각을 하면 참 빙그레 하고 웃습니다. 올해도 물난리가 난 것을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서 빙그레 웃었거든요, 한편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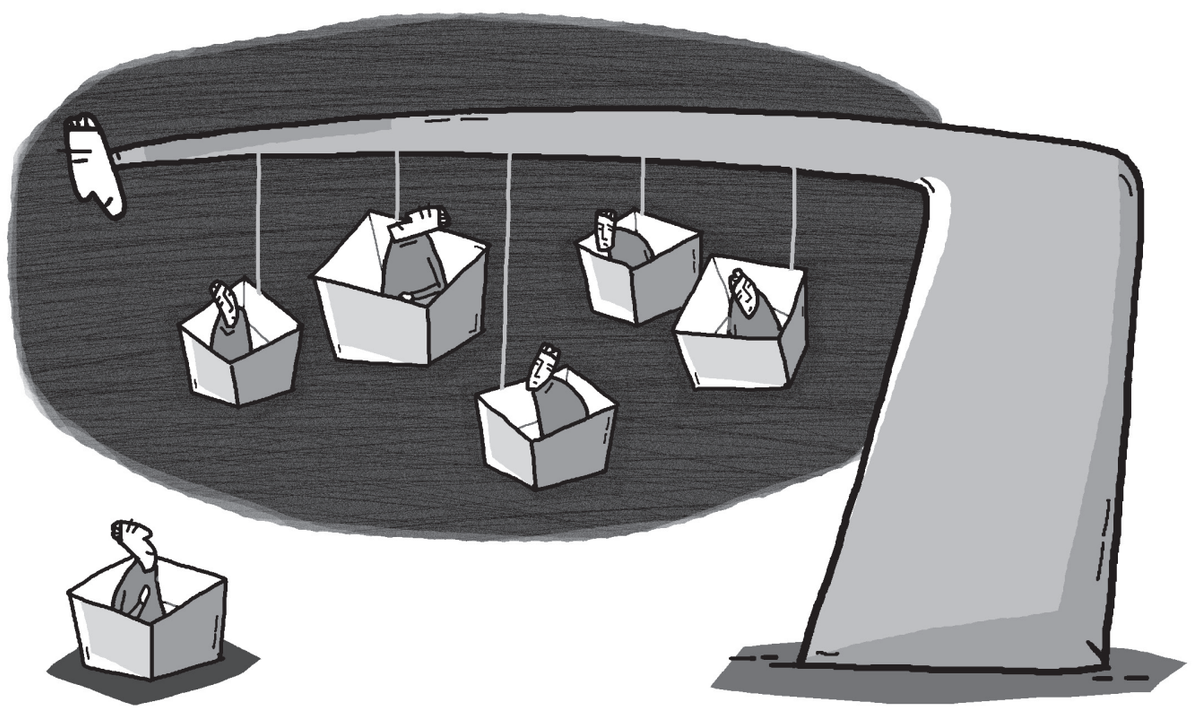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마음으로부터 만 가지 법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만 가지 법을 들일 수도 있고 둘째, 내가 만 가지의 모습을 할 수도 있고, 만 가지의 모습을 거둘 수도 있고 또 셋째, 내가 만 가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만 가지 사람을 내가 혼자…, 이러한 뜻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지금 시대가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알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한 시루의 콩나물에 대가리 하나 낀 것밖에는 안 되는 나라, 지구 안에서도 그런데, 대천세계를 한데 합친다면 그게 먼지 알갱이만이나 할까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먼지 알갱이 같은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서로가 옳지 않다고 그 싸움을 하고 화목지 못하고 이런다면, 우리는 지금 공부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상전은 우리 애들입니다. 심부름꾼은 엄마 아빠가 돼야 되고요. 첫째, 참 잘해 주어야 하고, 오순도순 말도 곱고 또 융화 있게 해야 하고 잘 먹여야 하고 잘 입혀야 하고, 잘 입히지는 못하나마, 잘 먹이진 못하나마 그래도 마음을 거스르지는 말아야 하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기 이전에 인의롭게 잘 대해 주고, 그런다면 따뜻하니깐 나갔다가도 집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야, 이 새끼야! 너는 공부하랬더니 만날 놀러만 다녀. 대학은 언제 들어가고, 공부는 언제 하고…," "야, 이 새끼야!" 이러던 버릇이 그냥 남아서 내내 애들을 보면 '이 새끼, 저 새끼' 이렇게 되고, "야!" 이렇게 되고 부인더러도 "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은 아니 됩니다.

나는 어려서 이런 거를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일본 사람들의 교양이라든가 그 습의 도리를 볼 때, 아내더러도 존대하는 거, 자식한테도 "해라" 하지 않는 거, 자식들이 보는 데서는 절대 싸우지 않는 것만은 참 보고 배울 만합니다. 또 남이 뭐를 주면 반드시 그 접시에 대신 다른 걸 담아서 주는 거, 이런 거를 볼 때에 아주 '사명 대사가 철저하게 버릇을 가르쳐 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을 하려다가 삐뚜로 가정 얘기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이제 시작을 해야죠.

사대 오온이 다 공해서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가 있다 한다면, 바로 우리 이 지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혹성들, 은하계, 태양계도 거기대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태양계도 수억 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혹성들이 이 오온에 가득 찬 데다가, 예를 들어서 자디잔 건 빼고도 큰 것만도 여섯 개나 되고, 그다음에 아홉 개, 그다음에 열두 개, 그다음에 열여덟 개, 그다음에 이십칠 개, 이렇게나 큰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바로 꽁지가 꽁지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그렇단 말이지, 앞으로는 더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벌써 이런 말 하고 지나가면 벌써 백 년이 흘렀다는 둥, 십 년이 흘렀다는 둥, 삼 년이 흘렀다는 둥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요렇게 말하고 돌아서면 벌써 일 년이 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똑똑히 따지고 보면 일 년 반이 지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서면 말입니다. 그렇게 시공이 없이 빠른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지금 허덕거리고, 이렇게 일일이 걸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은하계를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은하계의 별성밖에는 되지 않는다, 별 속에 별이 있습니다. 별에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